

발제강연

디자인 인증제도 - 도입의 방향모색



민철홍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배경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이른바 '디자인운동'의 핵심은 일관되게 디자인의 '質'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디자인활동이 본격화된 1950년대 이후의 기업의 경쟁력 우월성의 변화만 보더라도 제조기술(50~60), 마케팅(70), 경영(80), 디자인(90)으로 변천되어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미 디자인주도형개발 (Design Oriented Product)이 주요이슈로 대두되고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한편 앞으로의 사회적 가치들은 지역과 세계주의, 디지털 및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되어 디자인의 주요과제는 다원주의 (Pluralism)와 문화적 가치, 디지털, 환경친화, 사회적 가치들을 포괄하여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은 모든 디자인 부문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21세기 디자인 사에서 낙후 내지는 도태될 우려마저 있다 하겠습니까. 특히 디자인시대를 맞아 산업은 물론 국가와 생활전반에 걸쳐 디자인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자인분야 스스로는 디자인의 '창의'와 '질'의 가치에 대해 그 비전을 공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디자인의 산업화와 생활화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좋은 디자인(Good Design)'에 대한 척도와 제도적 장치- 즉 디자인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는, 디자인의 주체와 객체 모두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주체의 논의는 더 나아가 자기성찰을 통한 우리 디자인의 정통성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전 기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어 중요하다 하겠습니까.

2. 디자인 인증제도와 관련되는 현황

디자인 인증제도는 그 대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디자이너 인증과 디자인 산물(Output)의 인증입니다. 디자이너의 인증은 디자인을 위촉할 대상을 많은 후보 중에서 선발할 때 기준이 필요한 의뢰자(Client)를 위함이며, 디자인산물의 인증은 구매동기에 의해서 취사선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User)에게 가치평가의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디자이너 및 디자인 산물에 대해 인증을 하여 왔던 주요 제도들이 되겠습니다.

1) 디자이너 인증제도와 관련되는 제도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1966 ~)
- 특허청 의장등록 (의장권소유자)
- 정부주관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선정 (GD마크 제도)
-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인증제 (디자인 관련 분야)
- 국내외 기업체가 주최하는 디자인 콘페
- 기타,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사 또는 자료 (예- 포트폴리오, DM 등)

2) 디자인 산물의 인증제도와 관련되는 제도

-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디자인경영대상'

(포괄적 Brand Image)

- 사단법인 디자인단체가 시행하는 디자인상
- 정부주관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GD마크 제도)
 - ※ 조달청 구매 시 가산점 부여
- 특허청 의장등록 (의장권 획득상품)
- 주요 일간지 주최 '우수상품 Best 10' 선정 등

상기 인증제도 들에서 볼 수 있는 점들은 '정부주도형 인증제도' 가 많이 차지하고, '평가의 관점이 동일한 인증제도들'을 여러 기관에서 남발 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일 것입니다.

3. 혁신적인 디자인 인증제도 도입의 방향모색

디자인관련 인증제도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 디자이너인증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수한 디자이너의 '아웃소싱'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디자인의뢰인(client)은 객관적 기준으로 공인될 수 있는 디자인능력의 소유자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디자이너의 인증된 결과는 선발의 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디자인 전문숙성의 다양성에 비추어 현행 인증제도는 지나치게 스타일과 전시위주로 돼있어 그 인증이 편향된 점이나, 자격인증제와 같이 지나치게 기능직으로 판단되는 도구과목의 이수와, 방법론적 해석의 이해 정도로 디자이너의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 등은 적절치 않게 보여 집니다. 한편 그간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시행해 온 디자이너등록(소정의 자격기준에 의거) 제도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은 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된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훌륭하게 잘된 디자인을 인증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유경제 체제하에서의 모든 디자인산물을 일일이 규제하고, 평점을 주어 등급을 매기는 등의 인증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대로 자율에 의해 추천되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우수성을 인정하는 여러 디자인산물인증제도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GD상품 선정 시, 참여하지 않은 제품에도 우수디자인이 있다는 판단아래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추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행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당위성과 함께 내재된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새로운 대안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먼저 디자이너의 능력의 인증과 관련하여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디자인된 사물의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방법, 조형적 감성 등 객관적으로 인증 할 수 있는 자료들로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개념을 적용한 인증의 예들이 각종 공모전, 콤페에서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제도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디자인분야와 속성의 다원화추이를 감안하여 전시이외에 논문, 리서치, 인터랙션 등 기타 디자인 전문기술을 인증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철저히 요구되며, 그 행사는 각기 특성에 따라 형식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디자인 활동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근간으로 기능적 욕구충족과 조형적, 감성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또한 경제적 측면 등 복합된 요소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인증이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기능직으로 판단되는 도구과목이나 수리적인 방법론의 이

수와 이해 정도로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디자이너의 인증은 객관적 장애요인이 있을지라도 디자인 산물을 평가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디자인 산물의 평가와 인증은 '존재가치'에서 '존재형식'과 '존재방법'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컨셉트'의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맺는 말

최근에는 디지털산업의 발달과 소비자를 앞서가는 혁신적 디자인제품들의 빈번한 출현으로 소비자 스스로 선호하는 사물의 선택이 더욱 어려워지며 혼돈이 가중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마케팅 전략에 의한 Brand의 인지도나 신뢰성에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의존하는 경향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리고 문화와 디자인중심의 시대에 디자인인증제도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디자인 인증제도는 KS인증제도와 같은 규격검증과 품질인증과는 본질적인 특성이 달라 차별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디자인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디자인전문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제도의-전시이외에(또한 같은 전시라도)-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증행사들은 민간전문단체들에 의해 바탕을 두고 전문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제도는 자발적 의지에 의한 참여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 강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제를 위해, 또한 바람직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창의와 규율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재정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디자인에 바친 열정과 헌신, Good Design 신장에 기여하시고자 하는 의지로 중지를 모으고 다듬어 디자인인증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민철홍 교수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 디자인학부에서 ID수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역임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협회 회장 역임
국립 현대미술과 초대 민철홍전 개최
현 서울대 디자인학부 명예교수
한국디자인학회 명예회원
한국산업디자인협회 고문